



한화 건설부문, 2023년 수주·안전기원 행사 진행

(주)한화 건설부문 3개 사업부는 수주목표 달성 및 건설 현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2023년 수주 및 안전기원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사업부와 플랜트사업부 임직원 60여명은 각각 청계산과 북악산에 올라 화합의 시간을 갖고 사업부별 목표 달성 및 안전 시공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주한화 건설부문



한샘, 글래드 호텔과 손잡고 호텔 가구시장 공략

8일 한샘에 따르면 글래드 호텔엔리조트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 이번 제휴에 따라 한샘은 서울의 글래드 하우스 마포 14객실, 여의도 20객실 등 총 34개 객실에 자사의 '바흐 701 인칸토 식탁'과 '밴드 식탁의자'를 설치했다. 바흐 701 인칸토 식탁은 고급스러운 패턴과 감촉을 지닌 이탈리아 카살그랑데 파다나사의 포세린 스톤을 적용한 식탁이다.

/한샘



LX하우시스, 올 인테리어 트렌드 소프트웨어 제시

LX하우시스가 올해 인테리어 핵심 키워드로 기술, 환경,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의 의미를 담은 '소프트웨어(SOFTWARE)'를 제안했다. 8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최근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를 소개하는 전시·포럼 행사인 '트렌드십(TRENDSHIP)'을 열고 팬데믹 기간 IT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집이 단순 휴식공간을 넘어 업무·취미·소통 등 다기능 공간으로 진화한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기술과 환경, 사람이 부드럽게 연결된 '소프트웨어' 컨셉의 공간이 유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LX하우시스

인사

- ◆한국폴리텍대학 ◇대학 △한국폴리텍V대학 교무기획처장 박종필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교무기획처장 정주영
- ◆대한전문건설신문 △주간 황우호

부음

- ▲이경남씨 별세, 류광현(레인보우팜 고문)·성현(명성하나엔지니어링 이사)·영현(KBC광주방송부사장·지방자치TV 대표)씨 모친상, 류지혜(회사원)·호균(국세청 사무관)·정희(레인보우팜 대표)씨 조모상, 강주영(김연장 근무)·이기용(LG이노텍 근무)·서인호(경농연구원)씨 처조모상 = 7일 오전, 광주 국민장례문화원 특301호,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062-606-4000
- ▲신갑선씨 별세, 전강석(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씨 장모상 = 8일, 태안군 보건의료원 상례원 1층 1호실, 발인 10일. 041-671-5303
- ▲신영우씨 별세, 조수대(더파티 대표)씨 장인상. 8일 오전, 부산 북구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0일 오전 6시. 051-305-4000

# 셀트리온그룹, 인천·충북 6400가정에 14억 지원

지난해 다양한 나눔지원 활동 대상도 전년비 1700가구 늘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했던 나눔 사업 결과 6400여 가정에 14억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셀트리온그룹 내에서 후원 및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셀트리온복지재단은 한 해 동안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시와 충북지역의 소외계층에 ▲소외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12억1000만원 ▲절기나눔사업 2억원 ▲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지원 3000만원으로 총 14억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최근 4년간 약 50억원의 지원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해엔 재단의 나눔 사업의 핵심 지원 활동인 '소외계층 지원'의 대상 가구를 전년 대비 약



셀트리온그룹은 지난해 각종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6400여 가정에 14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

1700가구 이상 크게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또, 각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초수

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혼·미혼 가정 등 소외계층 가정의 상황에 따른 지원금 또는 현물 형태의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나눔 사업을 강화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롯데면세점, CES서 10층 규모 메타버스 쇼핑공간 선보여

면세 업계 최초 2년 연속 참가 버추얼 타워로 미래형 매장 구현

롯데면세점이 메타버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면세품 판매 채널을 다각화한다.

롯데면세점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 전시회인 '소비자 가전제품 박람회(CES)'에 면세업계 최초 2년 연속 참가해 메타버스 콘텐츠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5일부터 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롯데그룹 전시관에 참여해 '버추얼 롯데면세점 타워(LDF Tower)'로 미래형 매장을 구현했다.

버추얼 롯데면세점 타워는 총 10층 규모 건물의 메타버스 콘텐츠다. 이번에 선공개한 4개 층은 각각 로비, 피팅룸, 패션, 화장품과 향수 층



롯데면세점이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3'에 참여했다. 사진은 메타버스 콘텐츠 '버추얼 롯데면세점 타워(LDF Tower)'에서 구현되는 가상 쇼핑 매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CES 2022에선 가상 피팅룸에서 패션 상품을 시작하는 형태였다면, 올해는 이를 발전시켜 고객이 직접 선택한 아바타를 움직이며 브랜드별 매장에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여기에 쇼핑 아이템을

패션 상품에서 화장품, 향수로 추가 확대했으며 고객들 간 네트워크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시 기간 동안 롯데그룹 부스를 찾은 고객들은 HMD(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기기를 착용하고 롯데면세점이 제공하는 초실감형 메타

버스 라이프를 즐겼다. 고객들이 피팅룸에 진입하면 1인칭 뷰 모드로 변경되어 관심상품을 둘러보고 선택한 상품 시착이 가능하다. 현장에선 차세대 VR기술로 극대화한 리얼리티에 대해 고객들의 감탄이 쏟아졌다.

롯데면세점은 성공적인 CES 2023 진출을 시작으로 버추얼 롯데면세점 타워를 더욱 고도화해 추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주문과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주얼리, 주류 등 협업 브랜드도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특히 지난해 9월 관세청이 면세산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오픈마켓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면세쇼핑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인터넷면세점 개선과 함께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한화, 우주영재 육성 '우주의 조약돌' 첫 결실

1기 수료생 29명, 수료식 진행 비행형 채굴 로봇 등 결과물 발표

한화는 우주 영재 육성 프로젝트 '우주의 조약돌' 1기 수료식을 최근 서울 한화빌딩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돌'은 한화 계열사 우주 협의체인 스페이스 허브와 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함께 중학생 경험형 교육을 위해 설계한 우주 학교다.

연구 과제 선정부터 논리 구체화,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개념설계 과정, 과학·기술·공학·수학이 융합된 강의 커리큘럼, 역사·문학·철학 등을 접목시킨 우주 인문학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과 관련 모든 비



'우주의 조약돌' 1기 학생들이 KAIST 교수진과 함께 '우리가 달에 산다면'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용은 한화가 부담한다.

1기 수료생 29명은 지난해 7~12월 KAIST 항공우주공학과 현직 교수 8명과 석·박사 과정 멘토의 도움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7일 수료식에서 '중이접기형 달 탐사 기지', '비행형 채굴 로봇', '거울 위성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한 결과물을 발표한다.

1기생 전원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우주 교육 센터 및 도쿄 돔 시티 우주 박물관을 탐방하고, KAIST 영재교육원 수강권, 전문가 진로 컨설팅, KAIST 총장 수료증을 받는다.

/양성운 기자 ysw@

## 쌍용차 화천 산천어 축제서 티볼리 경품 등 후원

쌍용자동차가 세계 최고의 겨울 축제인 '2023 얼음나라화천 산천어 축제'에 소형 SUV 티볼리를 경품차량으로 제공하는 등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강원도 화천군청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추한빈 쌍용차 경기·강원지역본부장 및 최문순 화천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얼음나라화천 산천어 축제의 후원과 이를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약속했다. 2014년부터 매해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쌍용차는 현장 이벤트 경품으로 소형 SUV 티볼리 1대를 비롯해 스마트온도계 텀블러 등 축제기간 참가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